

하나님에게 항상 지는 생활을 하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생활이 하나님에게 지는 생활

하나님과 마귀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은 어떤 점이 다르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쉽게 되는 것이지, 마귀의 성품대로 생활하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을 논한다면 마귀의 성품은 오래 참지를 못하며 번덕을 부리는 번덕쟁이요, 한도 끝도 없이 참고 견디는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지 끝까지 참지 못한다면, 언제는 믿었다가 언제는 안 믿고, 언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다가 언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하는 그런 번덕쟁이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한도 끝도 없는 인내력이 있는고로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 오늘날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욕생활

그러므로 이 사람은 신앙 간증담 말씀을 할 때에 30일 동안 금식기도를 14번 하였다고 간증하였는데, 이 사람이 30일씩 금식기도를 하기 전에 열흘씩 금식기도 하는 것을 딱 먹듯 했다고 영모님이 말씀했습니다. 영모님 말씀대로 이 사람은 열흘씩 금식기도 하는 것은 거의 한 평생 하다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어려서 위장도 안 좋고, 횡베도 자주 앓던 사람이었는데, 성장하면서 금식기도를 자주 하게 되니까 위장병도 낫고 횡베도 깨끗하게 나았던 것입니다.

금식기도를 해 본 사람은 알지만 한 3일만 금식을 하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비가 오는 것입니다. 제일 고비가 3일인데 이 고비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금식기도를 딱 먹듯 했다면 얼마나 금욕 생활을 하려고 이 사람이 애를 쓰고 기를 썼다는 것을 그거 하나를 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 하기 싫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졸리면 잠을 안 자고, 무엇이 먹고 싶으면 먹지 않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반대 생활을 하게 되니까 바로 마귀의 영이 되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점점 더 약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못 이겨가지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날 나한테 지는 사람은 나라는 마귀가 언제가는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 받고 행동하라

그러므로 나를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버릇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게 되고, 마귀한테 유혹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제멋대로 하는 버릇이 있으면 언젠가 마귀가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생활하는 버릇을 가지려고 과거를 생각하면 뒤돌아보는 음란죄이므로 하나님께서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고, 가족을 생각하면 가족을 생각하는 관심의 음란죄가 되므로 가족을 생각하지 말



구세주 조희성님

라고 하시는고로 가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생각하려야 생각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모든 마음과 생명과 몸과 모든 전체를 하나님에게 맡겨라.”고 하시는고로 내 마음과 몸과 내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기려니 내가 내 마음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긴고로 하나님이 주는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만 행동을 해야지 내 멋대로 생각할 수도 행동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만 하게 되어야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겼다가 되므로 그러므로 내 마음과 내 몸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고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는 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영인 완성의 하나님의 영이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완성의 이긴자 구세주가 되는고로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겨야만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주체영이 되어서 완성의 이긴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려면 바로 내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바로 나라 것이 하나님께 뭐든지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승리제단 나온 후부터는 언제든지 지는 연습을 해야지 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승리제단 나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나오면 그건 마귀한테 졌다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진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는 생활을 연습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상대방이 미워할 때에 그 상대방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불 때를 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미워하고 제아무리 때리고 욕을 해도 그래도 그 미워하는 상대자를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끝까지 좋아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면 바로 그것이 마귀는 진 것이요,

하나님은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 편에서 불 때에 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불 때는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991년 12월 20일 말씀 중에서
원현옥 기자 정리

하나님께 지조를 지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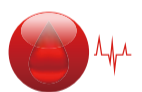
이 세상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소유였던고로 원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몸인고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약이라든지 음식물에 주님의 얼굴을 새기고 먹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고로 여러분의 병마를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고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제단 식구들은 다 하나님의 몸인고로,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고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여야 그래야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지 제멋대로 몰래 몰래 이 사람한테 가서 침 맞고, 저 사람한테 가서 침 맞고, 약신 받은 사람한테 가서 치료 받아 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 자체가 하나님의 몸인고로 하나님에게 해서 안 나오면 그건 마귀한테 졌다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진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조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사는 이러한 깨끗하고 정결한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고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일은 영생의 과일이니 지조가 뚜렷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생명과일을 주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제 승리제단에서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그래야만 생명과일을 먹고, 그래야만 영원무궁토록 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원리를 통한 심령현상의 새로운 해석

유체이탈(幽體離魂) 幽體離魂

유체이탈 과연 착각일까, 사실일까?

유체란 유체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에테르체라고 한다. 이 유체는 완전한 의식상태에서는 유체와 일치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을 때, 혼수상태, 졸도, 마취 그리고 자유의지에 의해 유체는 유체에서 빠져나와 마치 비행기와 같이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유체가 유체에서 빠져나와 미지의 세계로 여행하는 것을 유체이탈이라고 한다.

유체이탈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유체이탈은 명확한 사실로 직접 실험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생명력은 물질과 무관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개체가 유체와 지적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유체는 유체와 분리하여 존재, 또는 작용할 수 있으며, 죽은 뒤에도 역시 존재할 수 있으며, 불사불멸(不死不滅)은 이와 같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다음에 열거하는 논리들은 유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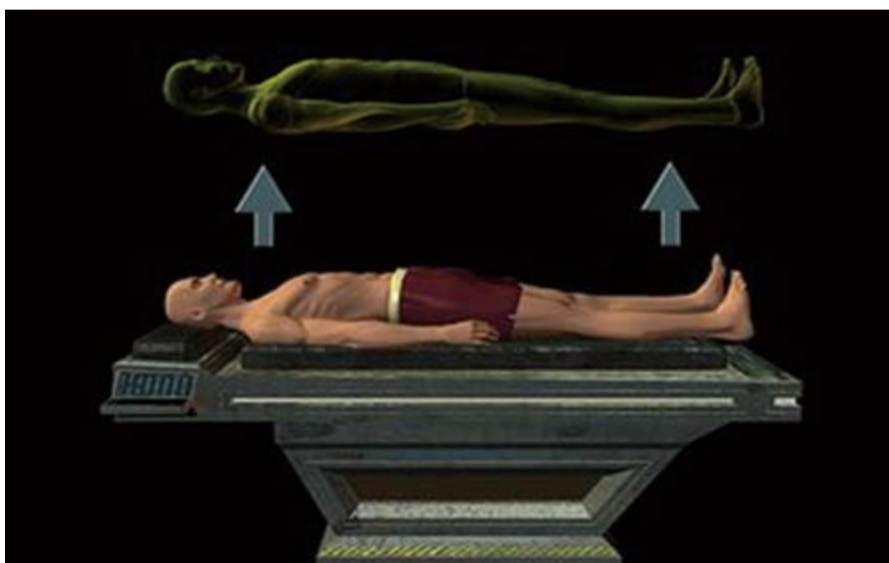
탈자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생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되레 유체와 유체는 결코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도 합리적인 증거가 될 뿐이다.

첫째, 유체와 유체는 혼종이라는 신축성 있는 끈으로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혼종은 은백색 광채나는 생명선으로서 유체와 유체를 본질적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혼종이 끊어지면 죽음을 뜻하며, 대다수의 심령학자들은 죽음과 유체이탈의 차이는 이 혼종이 연결되었는가, 아니면 끊어졌는가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 즉 죽음이라는 사실은 혼종이 끊어진 사실에 불과하고, 유체는 홀로 다른 세계(영계)로 날아간다는 주장이다. 그럴 듯하지만 혼종로 유체와 유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은 죽은 뒤 유체와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유체의 어느 한 곳을 건드리면 유체의 동일한 곳이 감각된다. 그 반대로 유체의 한 곳을 건드리면 유체의 같은 곳에 감각된다고 주장한다.

마음과 몸(영·육) 분리될 수 없는 하나 (과학적규명3)



유체이탈 상상 그림(출처: By Rad el Baluvar - Own work, wikimedia.org)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유체와 유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해줄 뿐 죽은 뒤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유체가 유체보다 좀 더 자유롭다는 것은 마치 생각이 몸을 벗어나서 움직이는 것처럼 유체란 단지 그런 관념적 존재일뿐 실체는 아니라는 점이다. 유체이탈의 경험을 분석해보면, 이탈자 자신의 몸의 상태(심리적 불안, 수면 자세, 머리가 놓여진 위치)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로써 유체이탈 현상도 역시 유체의 생물학적 조건에 철저히

지배를 받는 것임을 알 때 유체와 분리된 실체로서 유체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계는 체험자의 관념에 존재할뿐

셋째, 유체이탈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꿈과 같이 환상을 경험한다. 무슨 영계를 보고 왔던가, 아니면 천당 극락에 갔다 왔던가 하는 경우는 100% 환상을 경험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이탈의 경험은 즉, 개개인의 사상이나 종교, 영

혼관의 신념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인은 유체이탈을 하여 천국을 구경하고, 불교인은 부처님이 계신 극락을 다녀왔다고 하고, 선도(仙道)는 신성들이 사는 무릉도원에 갔다 왔다고 각각 다르게 주장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주인을 만나 우주선도 타고 왔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실제로 다른 세계 즉, 영계라는 곳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자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생각의 영상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서도 강조했듯이 사람의 기억과 경험이 모두 빛속에 녹화되어 있는 까닭에 그가 생각했던 경험을 소재로 하여 마음 작용이 그와 같은 환상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꿈이란 것을 생각해보자. 꿈에는 보통 우리가 평소 집착하고 있었던 영상이 많이 나타난다. 꿈을 꿀 때, 유체는 굳어 있지만, 꿈속에서 유체와 의식은 자유하므로 마음대로 상상의 나라를 편다. 사실 유체이탈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환상적인 꿈의 파노라마를 마음껏 경험하고 왔다는 자기 충족적인 기대감일 것이다. 또 유체는 생체에너지로 만든 일종의 사념 덩어

리다. 유체이탈이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를 송두리째 사용해서 자기의 유체에서 빠져 나오는 일종의 초능력을 발현하는 것이다. 결국 유체이탈이란 현상은 유체가 없으면, 살아 있지 않으면 더 이상의 조짐이나 징후조차 느낄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신경학과 의사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뇌 인지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라마찬드란(V. S. Ramachandran) 박사는 유체이탈 현상을 ‘뇌의 산소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았다.

유체이탈이 영육분리의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차치하고, 과연 유체이탈이란 신비체험이 가능할까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대답하겠다.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존재란 다름 아닌 바로 신(神)이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에게 단 한 가지의 불가능한 일이 있다. 그것은 죽어서 영혼이 영계(천국, 극락)에 간다는 황당무계한 공상을 실현하는 일이다.*

김주호 기자